나는 누구이며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이봉범

"나는 누구인가?"란 정체성에 관한 질문

이 질문은 1990년 대학원에 입학하며 시작된 연구자로서 꽤 긴 시간 걸어온 나의 궤적을 성찰하게 만든다. 나는 문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변혁 운동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학생운동의 경험과 1980년대 문학(연구)이 사회변혁 운동과의 연계 속에 진보적. 탈지식인적 경향으로 변전하는 모습에 공감했던 때문이다. 특히 노동해방문학의 이념적 노선과 대안적 전망이 이 같은 낭만적 열정을 신념으로 굳히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노동해방문학(사)으로의 참여가 조직의 와해로 무산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게다가 생계문제에 봉착하면서 몇 년의 방황을 거친 뒤 다시 문학연구자로 (재)입문하는 곡절을 겪은 바 있다.

문학연구는 무엇이고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
현대문학연구자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연구자로서 일상
강의, 연구재단 기획서 작성, 심사, 세미나, 학회 발표, 부업, 논문 쓰기, 자료들과 씨름하는 단조로운 일상.
논문(쓰는) 기계, 기획서(쓰기) 노예라는 자조...
세속적 사람노릇은 뒷전. 연구자로서 생존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일은 만만찮다.

대학-학회-연구자의 유기적 관계망으로 구성된 '연구공동체'
연구공동체 존립 위기, 연구환경 둘러싼 사회문화적 토대 붕괴

이미 활력을 잃은 지 오래……
방법적 대안이 없다는 의견과 무력감
대다수 주체가 약자임을 고백-자처하며 탄식
자기 위치를 보존하는데 급급한 모습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사태를 수수방관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위기감과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제도와 이로부터 파생된 관념, 관습(행), 문법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교집합이 존재한다.
현재로선 이 지점이 갱신의 유일한 발판인 것 같다.
현대문학자대회의 취지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역부족을 절감하면서도… … 연구자 개개인은 약자이나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론화시켜 (실질적) 연대를 이루어내면 그래도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연구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복잡한 요인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구조 개혁 여파로 국문학과(대학원)가 제도적 분과학문으로 존립할 수 있는 기반 축소.

제도적 요인 : 한국연구재단과 연구공동체의 관계 문제
현대문학연구(체) 전반이 연구재단이 부과한 틀에 갇혀버림.
연구재단 학술(지원)정책은 연구자 개개인의 지속가능한 연구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하는 장치. 구원자이자 훼방꾼
연구재단에 갇힌 연구공동체 내부의 풍경……
연구재단이 부과한 정책적 조건과 논리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내면화 하여 자율성, 주체성을 스스로 상실

학회의 위기 : '자율적 연구공동체'의 위상을 지니며 학문의 발전과 학계의 네트워킹을 형성, 강화하는 유력한 발판이 되어야 할 학회 일반이 처한 현황
- 학회 난립, 학술지 부실화, 종합선물세트식 학술대회, 논문편수 쌓기에 치중된 기능적 연구 범람, 논문의 총량적 비대화/질적 저하의 악순환 구조

등재지 제도의 역기능
학회의 과도한 양산, 학술지 범람의 저변에는 학술지 등재제도와 학술지 평가제도가 자리함. 업적평가 수단이라는 '기능성'에 치우쳐 있는 학술지의 존재방식, 그것이 학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는 역설. 부실학술지들이 학술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현상도 결국 연구업적 평가라는 기능성 때문.

소규모 지원금을 놓고 연구자-학회가 상호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가 강화될수록 국가(연구재단)/대학(원), 학회, 연구자 간 비대칭적 관계는 심화되고, 새로운 버전의 관학협동체제가 한국학술계를 지배하는 경향이 더 확고하게 정착될 것

우리 현대문학연구자는 근대전환기에 지식인상으로 강조된 권력과 시대에 맞서는 지사도 아니고(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회(활동)가 해방직후나 1980년대처럼 사회변혁운동에 일익을 담당할 만한 처지도 아니고 역량도 없다. 그저 학회를 매개로 지속가능한 연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기대하고 또 그 바탕 위에서 나의 연구가 인문학의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구하는 이 시대의 약자이자 서생일 뿐이다. 학회가 계륵이 되는 것을 막자.
이번 전국현대문학자대회를 접하며 나를 포함해 상당수의 연구자는 1946년 2월 임화 주도의 전국문학자대회를 떠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오늘의 자리가 엄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시대가 부과한 과제를 짊어지고 문학의 진로를 정립하기 위해 고투했던 그 역사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